

여수세계박람회 D-25

“기관·시민 모두 박람회 열기 재점화”

9개 기관·단체장 성공개최 공동 지원키로

여수교육지원청과 여수경찰서 등 여수지역 9개 기관·단체장들이 25일 앞으로 다가온 여수세계박람회(5월 12일~8월 12일) 성공 개최를 공동 지원하고 ‘엑스포 붐’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박람회기간 손님맞이 준비태세 확립과 시민참여를 위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들은 “박람회 개최 열기가 지

역은 물론 온 나라에 활화산처럼 불타올라도 모자라는 시점에 총선과 시·도의원 보궐선거로 그 열기가 시들해진 감이 없진 않았다”며 “아직 약간의 시간이 남았다는데 위안을 삼고 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박람회 열기를 재점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용차 안타기 운동에 대해 희망을 가졌지만, 잘 진행되지는 못했다”며 “남은 기간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대

중교통 이용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운동이 정착되면 택시 손님도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라며 “택시 기사님들이 시민 참여를 위해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일부 식당이나 숙박업소에서 요금을 턱없이 높게 책정한다거나, 예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돼 비난을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관광객이 인근으로 유출되는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고 업주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들 기관·단체장들은 남은 기간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람회 기간 조기 방학을 통해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등 여수박람회 성공 개최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이날 합동기자회견에는 장재익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병 여수경찰서장, 이창주 여수해양경찰서장, 손창성 여수세무서장, 이호주 여수고용노동지청장, 심장섭 여수상회회장, 이수현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장, 이영만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장, 김성중 여수소방서 소방과장이 참석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m@

“안전은 우리가” 광주지검 ‘특별지원단’ 발족

광주지방검찰청이 최근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특별지원단’을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특별지원단 산하에는 교통사범,

외국인범죄·출입국사범, 폭력 및 치기배사범, 마약사범, 해양사범 등 10대 주요 예상범죄 대책반이 운영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게 된다.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단장을 맡

으며 순천지청 차장검사가 특별수사상황실장을, 광주지검 공안부장 이태라 및 대규도 불법시위를 대비한 공안상황실장을 맡았다.

또 특별지원단은 대화조직위, 여수

시청, 전남지방경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 기관과 수시 간담회를 통해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계도 기간을 두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지검은 여수엑스포 붐 조성을 위해 입장권 393매를 단체 구입했으며 청사 내 민원실과 대기실에 엑스포 홍보 자료를 비치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집배원 오토바이 퍼레이드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김병수) 직원 200여명이 16일 오전 광주시 금남로에서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홍보깃발과 스티커를 부착한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홍보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전남지방우정청은 여수엑스포 기간 중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수엑스포우체국을 운영하고, 예쁜 우편함 사진 콘테스트와 우표전시회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통신사, 총선 특수로 재미 톡톡

후보당 전화홍보 두달간 최고 6000만원 사용

광주·전남 50억 추산...KT 단기전화 설치 8배

KT·SKT 등 통신사들이 선거특수로 잠깐 재미를 봤다. 단기전화 설치가 지난해 대비 8배 이상 증가했고, 통화량도 평소보다 20% 가량 늘었다.

16일 KT 호남유선네트워크운영단과 정지권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올들어 KT의 단기전화 가입이 급증했다. 1월 161건, 2월 480건, 3월 426건, 4월(총선 전날인 10일 까지) 516건 등 총 1583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2건(1월 44건, 2월 28건, 3월 110건, 4월 0건)과 비교해 무려 8.7배가 늘어난 수치다.

통화량도 폭증했다. 일반적으로 통

화량이 많은 연말 수준을 뛰어넘었다.

광주지역의 KT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연결된 통화량은 지난해 12월 41만7399건이었다. 하지만 올해 1월 44만4086건, 2월 48만8503건, 3월 45만4500건으로 크리스마스가 낀 연말보다 6.4%~17% 늘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비용으로 한 후보당 하루 80만~100만원 가량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개월간 전화홍보를 했다면 후보당 4800만~6000만원을 쓴 셈이다.

이들 광주·전남 국회의원 지역구

19곳에서 5명씩 경쟁(평균 경쟁률 4.4대 1)할 경우 전화홍보 비용은 45억 6000만~5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 A선거구 B후보 선거캠프에서는 전화홍보팀을 꾸려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활동에 주력했다. 이 캠프에서는 2개월간 텔레마케터 20명을 운용했고, 텔레마케터 1명이 하루 200통의 전화홍보활동을 했다. 문자메시지는 하루 3만~4만건을 보냈다.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나 신인 정치인의 경우 전화홍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이번 선거는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고전적인 전화홍보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선거 활용도가 컸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시 150억 ‘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 추진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50억 규모의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18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문광부와 공동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투자설명회’를 갖고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제1호 결성계획을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15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은 광주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내에 들어서는 문화·관광산업 관련 업체에 투자하며, 오는 8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전국 문화산업 관련업체,

창업투자회사, 관광 개발회사 등 150여개 업체의 대표자들이 참가하는 이번 투자설명회에서, 광주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수도권 소재 8개 문화기업과 6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투자유치를 본격화한다는 복안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광주는 CGI센터 등 최고의 문화산업 인프라와 우수한 노동력이 집적화돼 있어 전국에서 문화산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광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문광부와 함께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국제관계배수위원회 총회

2014년 9월 광주서 열린다

‘2014 국제관계배수위원회 총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지난 9일 한국농어촌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 국제관계배수위원회 총회 유치 희망지역 선정 결과,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개최하는 2014년 총회는 오는 9월 14일부터 20까지 7일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약 100여개 국가에서 700여명의 물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남도, 中 장시성과 자매결연...박지사 16일 출국

박준영 전남지사가 중국과의 교류 확대와 강화를 위해 16일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장시성 방문길에 올랐다.

박 지사의 이번 방문은 2004년 4월 우호교류약정을 체결한 이후 청소년과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협력 활동을 펼쳐오다 지난해 10월 장시성에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체결을 제안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 입장에서 그동안 중국 동부 해안지역 위주의 교류에서 내륙까지 상호교류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열린 제266



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장시성과의 국제 자매결연 동의를 상정해 승인받은 바 있다. 박 지사는 이번 방문 기간동안 양 지역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자매결연 체결식, 한중 수교 20년을 기념하는 전남도·장시성 간 기념 우편봉투 제작식, 양 지역 학생 20명만 상호 편지 부치기, 장시성 상공인 간담회, 농업·문화시설 시찰 등 다각적인 교류활동을 펼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새 경찰청장 김기용 내정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으로 사의를 밝힌 조현오 경찰청장 후임에 김기용 경찰청차장이 내정됐다. 경찰위원회는 16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 차장을 경찰청장 단수후보로 확정했다. 충북 제천 출신인 김 차장은 형사 특례로 경찰에 입문한 뒤 서울을 산경찰서장과 경찰청 정보3과장, 충북 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보안부장, 경찰청 경무국장을 지낸 뒤 울주 치안장 겸인 경찰청차장으로 승진됐다.연남스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 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뻣새를 잘 말할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졌던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한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0204-증-4738호

철·저·한·독·일·원·의·장·인·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잠을 자도록 합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공무원 대 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포회기록

1. 대상 - 현직공무원, 기능직, 교직원, 군무원
2. 한도 - 300~7000만원
3. 금리 - 연-5.9%미만 (천만원당 月5만원미만)
4. 기간 - 1년~10년 중 선택 (본인선택, 연장가능)

❖과대출, 연체(등급미납)자도 가능!!
❖고급리 대출 사용자 →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개인회생자, 신용불량자 → 100~500만원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한도는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대부 제 644호)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정보관리 철저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건)
- ◆ 대출금리 : 1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대출 : 연체(등급미납)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가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 선순위 - 연 5%~7.5% (은행금율) / 후순위 - 연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대부 제 642호)